

# “‘군공항 이전 정부 주도 TF’ 유일한 성과에 허탈”

李대통령 ‘광주 타운홀미팅’ 파장 지역현안 언급 없어…울산과 대조 토론 일정·진행 방식 등 지적도 광주시 게시판에 토로글 이어져 “실질적 지역발전 담론 장 돼야”

이재명 대통령의 ‘광주시민·전남도민 타운홀 미팅’이 열린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파장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광주 군공항 이전 해법으로 대통령실 주재의 TF 구성을 공식화한 것을 제외하면, 지역 핵심현안에 대해 대통령의 확답이나 정부 차원의 지원 메시지가 없었다는 비판이 이어지면서다.

특히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지역현안에 대해 구체적인 전략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질타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행사가 급하게 마련된 데다 당초 정해진 토론 순서나 주제에서 벗어나 자유 질의 형식으로 바뀌면서 지역현안을 제대로 어필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지 않는 등 토론

방식에 대한 지적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3일 지역 정치권 등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진행된 타운홀 미팅 후 이 대통령은 광주 군공항 무안 이전 논의를 국가 의제로 공식화하며 대통령실과 국방부, 기재부, 국토부, 광주시, 전남도, 무안군이 참여하는 6자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표류하던 이전 논의가 정부 주도 체계로 전환됐다는 점에서 큰 성과로 평가된다.

하지만 광주·전남의 핵심 현안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나 정부 차원의 지원 약속은 나오지 않았다.

특히 이 대통령이 지난달 20일 울산을 방문해 SK그룹의 7조원대 AI(인공지능) 데이터센터 구축에 힘을 실어준 것과 달리 지난 대선에서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며 당선을 뒷받침한 광주·전남엔 이렇다 할 화답을 하지 않아 상대적 박탈감도 커지고 있다.

이번 타운홀에서 광주시는 △AI 2단계

사업(AX 실증밸리)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빛그린·미래차산단 조성 등 AI 모빌리티 신도시 조성 계획을 설명했고, 전남도는 △국가 AI 데이터센터 유치 △재생에너지 송·배전망 확충 △전남 동부권 산단 확대 등 필요성을 제시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정부가 뭘 도와줄 수 있느냐”, “실효장 방안을 말해 달라”고 되물으며, 지역 제안이 실행 전략 없이 막연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행사 직후 지역 여론은 “군공항 TF 외엔 손에 잡히는 성과가 없다”, “AI와 산단 등 현안은 들었을 뿐 아무 말도 없었다”는 반응과 함께 “단체장 무능으로 전략을 살리지 못했다”는 비판이 동시에 제기됐다. 시민 소통을 표방한 자리가 오히려 지역 전략 부재와 중앙 기획 미비를 드러내는 무대로 귀결됐다는 분석이다.

일각에서는 타운홀 미팅의 기획 구조 자체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타운홀 행사가 개최 이틀 전에서야 최종 확정돼 각 시도에 충분한 준비 시간이 없었다

는 것이다.

실제 강기정 광주시장은 “타운홀 하루 전날 연락을 받았다”며 “준비할 시간도 없이 무대에 올랐고, 이후 준비 부족의 책임을 모두 떠안게 됐다”고 해명했다.

광주시는 AI 2단계, 문화 콘텐츠, 교통, 5·18 등 지역 핵심 현안을 발언 의제로 준비했지만, 토론 방식이 사전 발표에서 자유 질의로 변경되면서 발언 기회를 얻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청 내부 게시판 ‘열린마음’에도 “행사장 배치, 방식 등 아무런 공지가 없던 탓에 직원들이 낯밤을 새면서 자료준비를 하게 됐다”, “최소한 예정돼 있던 분들에게 만큼은 발언 시간이 주어져야 하는 거 아니냐”, “선물인지는 모르겠지만 군공항TF 외엔 아무런 약속도 없이 떠나셨고, 논란만 남았다” 등 불만의 글이 연이어 올라왔다.

전남도 또한 전남 국립의과대학, 에너지 기본소득 확대 지원 등 대통령실에 요구하고자 했던 지역 현안을 제대로 언급

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지역 정가 관계자는 “이번 타운홀 미팅은 대통령이 지역과 직접 소통했다는 상징성은 분명하나 사전 의제 조율이나 정책 결정권자 간의 전달 경로, 후속 논의 체계를 전혀 설계하지 않은 점에서 단순한 공개 질의응답에 그쳤다는 비난을 피하기는 어렵다”며 “이런 방식을 고수한다면 균형발전 담론을 실행 가능한 과제로 수립시키는 데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의 타운홀은 단순한 시도민과 지방자치단체장과의 접촉 행사로 머무를 게 아니라, 최소한의 사전 의제 공유, 전략 발언 보장, 중앙과 지역 간 역할 배분이 담긴 행정 담론의 장이 돼야 한다”며 “지방정부 또한 자기 전략을 정책 언어로 설계하고 이를 정교하게 관찰시킬 수 있는 실무 역량을 키워야 정부에 지역 현안 해결방안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실질적 균형발전을 이뤄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오지현·정상이 기자

## 전남 이모빌리티, 인도네시아 시장 공략

발리서 산업생태계 조성 협약 252만 달러 규모 수출협약 성과

전라남도가 동남아 시장 진출을 위해 세계 3위 이륜차 보유국인 인도네시아 시장 공략에 나서 현지 실증 업무협력과 252만 달러 수출협약 등 성과를 거뒀다.

전남도는 영광군, 한국자동차연구원, 전남테크노파크, 한국스마트이모빌리티 협회, 도내 이모빌리티 9개 기업 관계자 등이 참여한 이모빌리티 시장개척단을 지난 6월 27일까지 4일간 인도네시아 발리에 파견했다.

인도네시아는 세계 3위의 이륜차 보유국으로 자동차보다 6배 많은 1억1000만 대의 이륜차를 보유한 매력적인 시장이다.

시장개척단은 △발리 지방정부와 이모빌리티 생태계 조성 업무협약(MOU) △기안야르시, 수카와티 데사와 이모빌리티

산업발전 협력 의향서(LOI) 체결 △현지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등 인도네시아 이륜차 시장 공략에 적극 나섰다.

전남도, 영광군, 한국자동차연구원, 한국스마트이모빌리티협회는 발리 지방정부와 업무협약을 통해 △기술표준 수립 △관련 전문가와 지식 교류 △정부 지원 프로젝트와 공공자금 확보 등 이모빌리티 산업 활성화를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발리 지방정부 산하기관인 기안야르시, 주민협의체로 구성된 수카와티 데사와 충전 인프라 설치, A/S 시스템 운영 등 케이(K)-모빌리티 해외실증 사업 추진을 위해 협력기로 했다.

22개 현지 바이어 기업과 ㈜에이치비, ㈜로웰에스엠 등 전남 9개 기업이 참여한 수출상담회에선 농업용 전기운반차, 전기 이륜차, 전기차 충전기 등 총 48건, 871만 달러 규모의 수출 상담 성과를 올렸다.

오지현 기자



김영록 도지사 금융버스 ‘가드림’ 일일명예지점장 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3일 구례5일시장에서 전통시장·소상공인 경영 애로 청취를 위한 금융버스 ‘가드림’ 일일명예지점장으로 위촉된 가운데 전통시장·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보증상담 업무를 지원하며 고충과 건의 사항을 청취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 광주시, 성폭력 피해자 자립 ‘새출발 응원금’ 지원

보호시설 4개월 이상 퇴소자 대상 전액 시비로 1인당 500만원 지급

광주광역시시는 성폭력 피해자의 자립을 돕기 위해 보호시설에서 4개월 이상 생활한 뒤 퇴소한 피해자에게 1인당 500만원의 ‘새출발 응원금’을 지급한다고 3일 밝혔다.

‘새출발 응원금’은 여성가족부의 자립 정착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성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광주시의 독자적인 지원정책이다.

지원 대상은 광주지역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 4개월 이상 입소한 뒤 퇴소한 사람이며, 여성가족부의 자립정착금과 중복 수령은 불가하다.

2024년 기준 광주지역 보호시설에는 약 20여명의 피해자가 입소해 생활하고 있다.

이 가운데 90%가 경제성 지능 또는 정신적 장애를 동반한 피해자인 것으로 나

타났다. 이들은 사회 복귀와 경제적 자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추가 지원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정부 자립지원금은 △19세 미만 입소 △6개월 이상 입소 △19세 이상 퇴소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수령할 수 있어, 광주시의 연간 수혜자는 1~2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광주시는 실질적인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해 전액 시비로 ‘새출발 응원금’을 신설해 지원한다.

이번 제도는 경제적 지원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복귀에 필요한 실질적인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영동 여성가족국장은 “새출발 응원금은 단순한 지원금을 넘어 피해자의 삶을 회복하고 지역사회에 복귀하는 데 있어 중요한 디딤돌이 될 것”이라며 “피해자 중심의 복지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상이 기자

## 광주 대인예술야시장 ‘한여름밤 미식 바캉스’ 개장

5·12·19일…체험·응원 이벤트 이색 막걸리 등 미식 부스도

광주광역시시는 7월 매주 토요일(5·12·19일) 오후 6~10시까지 동구 대인예술시장 일대에서 ‘한 여름밤의 미식 바캉스’를 주제로 ‘2025 대인예술야시장’을 연다고 3일 밝혔다.

대인예술야시장은 전통시장과 예술의 상생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대표적 야간 문화공간으로, 청년층과 가족 단위 방문객 모두에게 감성적이고 힙한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 올해는 콘텐츠와 공간 연출을 대폭 새롭게 구성해 관람객을 맞이한다.

먼저 시장 전역에는 전통 먹거리와 푸드트럭이 어우러진 미식 부스가 마련돼 토요일 저녁 밥상을 책임진다.

특히 청년예술가들과 상인회가 협업해 만든 ‘대인 말차 막걸리’, ‘얼그레이 막걸리’ 등 이색 막걸리 시리즈는 대인예술시장의 감성을 담은 대표 콘텐츠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다양한 참여형 콘텐츠도 마련된다. 청춘들이 못다한 이야기를 고백하는 1990년대 추억의 인기 프로그램을 오마주한 ‘가슴을 열어라’는 시장 옥상에서 진행되는 참여형 체험 무대로, 세대 간 소통

을 유도한다.

오락실 게임을 실물로 구현한 ‘대형 테트리스 체험’, KIA 타이거즈 응원 이벤트 ‘기아야가 보즈아!’, 어린이 체험형 미션 ‘부엉이 탐험대’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특히 이번 야시장에서는 대인예술시장을 상징하는 부엉이 캐릭터가 새롭게 리뉴얼돼 선보인다. 새 캐릭터 ‘부엉’, ‘여영’, ‘고영’은 굿즈로 제작돼 아트슈퍼마켓에서 판매되며, 캐릭터 탄생 스토리를 배경으로 한 ‘어린이 그림 대화’도 현장에서 진행된다. 수상작은 8월 ‘한평 갤러리’에서 전시될 예정이다.

시장 곳곳에는 복고 감성과 여름바캉스 분위기를 살린 포토존과 감성 공간이 조성돼 방문객들의 특별한 추억을 선사한다.

참가 신청은 공식 블로그나 인스타그램(@owler\_daerin\_2025)을 통해 가능하며, 기타 문의는 대인예술시장 사업단(062-233-0270)으로 하면 된다.

정상이 기자